

日 정치권 '집단지위권 행사' 용인 공방

여야 정당 대표들 당수 토론회서

아베 총리, 헌법해석 변경 당위성 역설

일본 여야 정당 대표가 11일 오후 당수 토론회를 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아베 총리(자민당 총재)와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아사오 게이치로(浅尾慶一郎) 다함께당 대표가 나서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오는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다는 목표에 따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의 당위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된 당세 약화로 인해 사임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가이에다 대표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따른 헌법해석 변경만으로 국가의 중대 안보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입헌주의에 위배된다는 기존 입장을 따라 아베 총리를 강하게 몰아세울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유신회와 다함께당이 그동

안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가이에다 대표의 '고군분투'가 예상된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10일 공명당 소속 각료인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국토교통상을 포함한 공명당 의원들과 도쿄 도내 프랑스 음식점에서 만찬했다.

일본 언론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신중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공명당을 설득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했다.

일본 각의의 의사결정은 원칙상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헌법해석 변경에 대한 각의 결정을 하려면 공명당 소속인 오타 국토교통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간사장은 10일 지바(千葉)시에서 행한 강연에서 정기 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각의결정을 마무리하는 아베 총

리의 계획을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연립여당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0일까지 안보법제 정비 방안을 놓고 5차례 협의를 벌였지만, 집단 자위권 행사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힐러리 대권 행보 시작

회고록 '힘든 선택들' 출간 전국 북투어 나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회고록 '힘든 선택들'(Hard Choices) 판매를 계기로 전국 북투어에 나섰다.

그는 "2016년 차기 대통령 선거는 여성에게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말해 북투어와 함께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일간지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2008년과 비교할 때 다른 2016년 대선에 나설 여성 후보는 정치적으로 더 나아진 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두고 민주·공화당을 통틀어 사실상 유일한 차기 여성 대권 후보로 꼽히는 클린턴 전 장관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대망론에 본격 불을 붙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의 회고록 출간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08년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과 당내 경선 당시 성차별적 함담과 야유를 접했던 클린턴 전 장관은 "우리 사회가 학습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생각한다"며 "(2016년 대선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접한 인종차별과 같은 성차별 흔적이 남

아 있었지만 과거 회귀적이거나 용인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평소 즐겨 사용하는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의 '코뿔소 같은 피부'를 키워라'라는 명언을 거론하고 "정치, 경제, 언론 등 여러 공적 영역에 진출하려는 여성들은 사회의 이중잣대에 맞서 스스로 강해진 뒤에야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으로 여성 인권 신장에 이바지한 엘리너 여사는 여성 정치지망생들에게 비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 말을 남겼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뉴욕을 시작으로 필라델피아, 시카고, 워싱턴DC, 북버지니아 등 몇 주간 전국을 돌며 회고록 서명 행사를 한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08년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과 당내 경선 당시 성차별적 함담과 야유를 접했던 클린턴 전 장관은 "우리 사회가 학습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생각한다"며 "(2016년 대선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접한 인종차별과 같은 성차별 흔적이 남

"내 젊은 날의 이상 곁에 함께 묻히고 싶다"

美 유명인 묘역 주변 땅값 급등

"내 젊은 날의 이상 곁에 함께 묻히고 싶다."

미국에서 유명 연예인, 저명인사 등이 묻힌 묘역 주변의 '무덤 자리 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평소 존경하고 좋아했던 유명인의 묘지 옆에 자리를 구해 함께 묻히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에서 재즈 색소폰 주자 겸 클라리넷 연주자로 활동하는 빅터 고인스는 젊은 날 자신이 이상처럼 여겼던 듀크 엘링턴의 묘지가 있는 부근에 자신의 묘지를 미리 사뒀다.

듀크 엘링턴은 1930년대 뉴욕의 할렘 지역에서 대 유행했던 일종의 지르박 춤인 '린디 홉'(lindy hop)의 창시자다. 그는 1974년 맨해튼 위쪽에 있는 브롱크스 지역의 우드론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

젊은 날의 이상 곁에 묻히려는 움직임은 메릴린 먼로와 같은 유명 연예인이거나 미국의 유명 민권운동가인 로사 파크스가 묻혀 있는 묘역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메릴린 먼로가 묻혀 있는 로스앤젤레스 뿔치리의 바로 뿔치리는 심지어 지난 2009년 이베이를 통해 경매에까지 나와 460만달러에 낙찰됐다.

먼로 바로 위에 묻힌 사람의 부인이 남편이 남기고 간 100만달러 상당의 부동산 채무를 갚으려고 23년간 남편이 누워 있던 자리를 경매에 내놔던 것이다.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의 창업자 휴 헤프너 역시 7만5천달러를 주고 먼로가 묻힌 주변 자리를 사들이기도 했다.

'팜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묻히자 인근 뿔치리는 2천달러에서 9천900달러로 무려 5배 가까이 폭등한 적도 있다.

로사 파크스가 묻힌 디트로이트의 묘역도 2006년 뿔치리가 1만5천달러 수준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와 함께 마티 마코위츠 브루클린 자치구 전 회장이자 저명한 브루클린 출신 인사들의 묘지가 많은 그린우드 공동묘지에 미리 '살 집'을 봐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쌍둥이 형은 겨울·동생은 봄에 태어나

美서 24일 시차로 출산

미국 보스턴에서 남아 쌍둥이가 무려 24일의 시차를 두고 출생하는 드문 일이 벌어졌다고 폭스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산모 린달바 다실바(35)는 지난 2월27일 임신 24주차에 산기를 느껴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료진은 일단 산기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의료진은 결국 쌍둥이 가운데 한 명을 세상에 나오도록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나머지 한 명은 계속 태속에서 자라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차를 두는 출산은 무엇보다 아이의 감염 위험이 가장 어려운 대목이

다. 게다가 태반을 공유하지 않는 이란성 쌍둥이에게만 가능하고 첫 번째 출산 이후 산모의 진통이 없어져야 가능하다.

다행히 이같은 난관들을 극복한 다실바는 "쌍둥이지만 겨울과 봄에 각각 태어났다"며 기뻐했다.

담당의사는 지난 20년간 시차를 두고 태어난 쌍둥이를 본 것은 10건 이하라며 더구나 이번과 같이 오랜 시차를 두고 태어나고도 둘 다 건강할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쌍둥이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 있으나 상태가 좋아 당초 예정됐던 18일 집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의료진은 낙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교 초고층 타워 '도라노몬힐스' 개장

일본 도교 도심 한가운데에 높이 247m의 초고층 복합빌딩 '도라노몬힐스'가 완공돼 11일 정식 개업했다. 지상 52층의 도라노몬힐스는 2020년 도교올림픽 경기장으로 이어지는 수도환상 2호선 도로위에 건설됐으며 롯데가 미드타운타워에 이어 도교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일본 도교 도심 한가운데에 높이

247m의 초고층 복합빌딩 '도라노몬힐스'가 완공돼 11일 정식 개업했다. 지상 52층의 도라노몬힐스는 2020년 도교올림픽 경기장으로 이어지는 수도환상 2호선 도로위에 건설됐으며 롯데가 미드타운타워에 이어 도교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실종 말레이시아 여객기 2단계 해저수색작업

말레이시아와 호주가 지난 3월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MH370)와 관련해 2단계 해저수색 작업에 착수했다.

말레이시아 언론은 11일 남인도양 수색을 총괄하는 호주 합동수색조정센터(JACC)가 양국 정부 간 협의를 거쳐 2단계 해저수색을 위한 해저지도 제작 업체로 네덜란드 푸흐로사(社)를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푸흐로사는 음파 등을 이용해 수천m 깊이의 바다 밑을 측량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갖춘 선박을 투입, 중국 해군함정 주커전호와 함께 호주교통안전국(ATSB)이 실종 여객기 추락 장소로 추정된 남인도양 6

만km의 해저 지도를 제작하게 된다.

JACC는 "해저 측량을 통해 수심이 최고 6000m나 되는 남인도양 수색 해역의 지형과 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해저지도 제작이 끝나면 8월경에는 2단계 심해 수색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심해 수색 해역은 수심이 지난 4월 말 끝난 1단계 해저수색 해역(4500m)보다 훨씬 깊어 미국 해군의 무인잠수정 블루핀-21보다 성능이 뛰어난 장비가 필요하고 수색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바람도 시간도 쉬어가는 천혜의 자연 신안으로 오세요!

우리지역을 이끌어 갈 여러분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p>신안군수</p>  <p>고길호</p>	<p>도의원</p>  <p>김홍빈</p>  <p>정연선</p>	<p>기초의원(가선거구)</p>  <p>양영모</p>  <p>주은덕</p>	 <p>신안 천일염</p>
<p>기초의원(나선거구)</p>  <p>조영훈</p>  <p>이원용</p>  <p>최춘욱</p>	<p>기초의원(다선거구)</p>  <p>권은현</p>  <p>이중주</p>	<p>기초의원(라선거구)</p>  <p>신인배</p>  <p>정광호</p>	<p>군의원(비례대표)</p>  <p>장미라</p>

신안군청 임직원 일동 / 신안군의회 임직원 일동 / 농협 목포·신안군지부 임직원 일동 / 신안수산협동조합 조합원 일동 / 신안교육지원청 임직원 일동 / 한국전력 신안지점 임직원 일동 / 신안군산림조합 조합원 일동 / 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 지사장 박중호외 임직원 일동 / (주)찬유전력 대표이사 최진기의 임직원 일동 / (주)보경전기 대표이사 이상선의 임직원 일동